

2026해1차 따숨 말글책꽃문학상

흔미정음이

어어다만
씨씨

사회적협동조합 따숨 어린이 글·그림

따숨 지역 아동 센터 · 따숨 놀이터

북메니저

(임의로 넣음)



차 례

독후감

책말꽃기림

신우정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01

입말꽃기림

손이설 세종대왕 -----03

정강우 세종대왕님께 -----04

글말꽃기림

황하루 세종대왕 -----05

소예원 세종대왕 -----06

생활글

생활꽃기림

김서연 귀신이 찾아왔다. -----08

이다온 재미있는 지리산 한밤자기 -----09

나눔꽃기림

김유주 삼총사가 문 연 서점 -----10

조이현 사과나무의 마음 -----12

이음꽃기림

시도아 재미있는 따숨지역아동센터 -----136

정지우 밝심을 키우는 한밤자기 -----14

이지우 지리산 무서운 소리 -----15

신혜승 전북대학교 신문사 방송 수업 -----16

차지유 지리산 한밤자기 -----18

차 례

배움꽃

독후감

이지안	세종대왕	-----	23
채연우	세종대왕	-----	24
김지율	세종대왕	-----	25
박준영	세종대왕	-----	26
조이현	세종대왕과 장영실	-----	27
홍라희	세종대왕	-----	28
김서연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	29
신혜승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	30

생활글

이하율	사랑하는 센터	-----	32
최하은	한밤자기에 밤하늘~	-----	33
이하은	삼총사가 함께 한 시장	-----	34
정강우	상상드림 피크닉	-----	35
양지우	안녕 꽃게야	-----	36
조유라	지리산 한밤자기	-----	37
최우주	베게 싸움은 내 전문	-----	38
황다은	나도 다닐래	-----	39
신우정	힘든 지리산 한밤자기	-----	40
유상민	밥 먹는 습관	-----	41

차 례

독후화

김유주	세종대왕	-----	43
조서현	세종대왕	-----	44
차지유	세종대왕	-----	45
신지영	훈민정음	-----	46
김가현	세종대왕	-----	46
시도아	편종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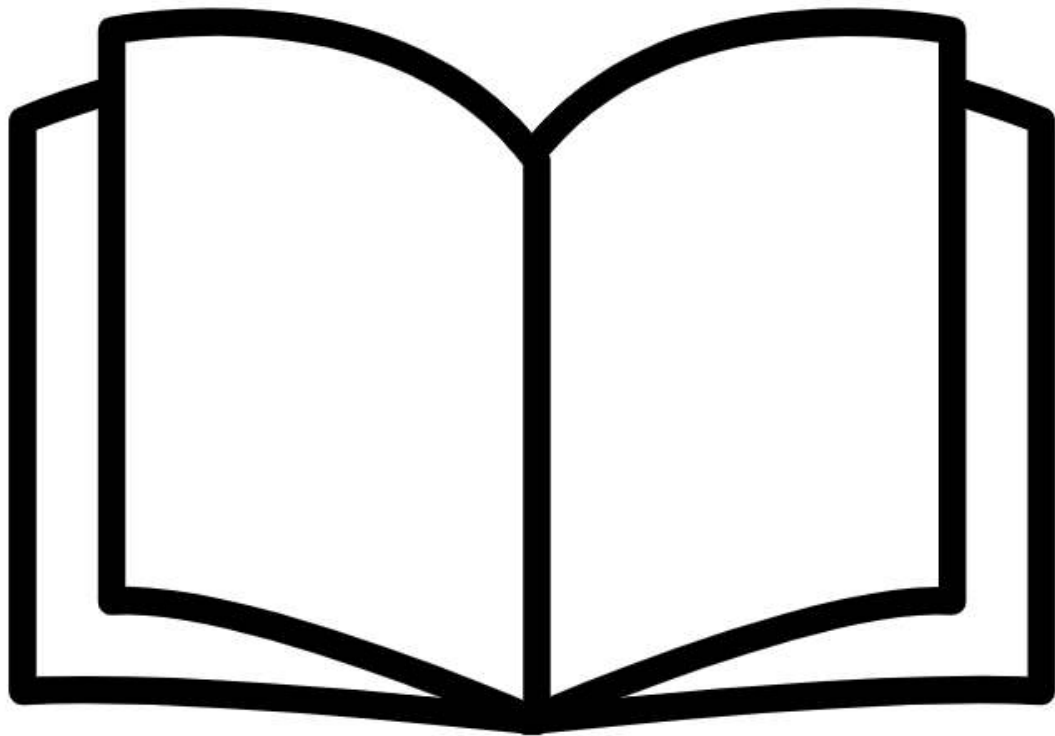
심사평

-----47

알림본

-----47

1차 말글책꽃기림독후감



책말꽃, 입말꽃, 글말꽃 기림

신우정	초 6학년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책말꽃기림
손이설	초 1학년	세종대왕	입말꽃기림
정강우	초 3학년	세종대왕님께	입말꽃기림
황하루	초 2학년	세종대왕	글말꽃기림
소예원	초 3학년	세종대왕	글말꽃기림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6학년 신우정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훈민정음이 없었겠지.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오늘날엔
중국에서 빌려온
한자를 썼을 거야.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책도 없었겠지.

장영실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을 거야.

장영실은
물시계와
해시계 등을

만들었어.

장영실 덕분에
오늘날엔
비 오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도
한글이 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글을 쓰고
말하면서
한글이 생긴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1학년 손이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왕이다.
한글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글자가 많아요.
쉬운 글자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종대왕님께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정강우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정강우이에요,
세종대왕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쉬운 한글을 쓸 수 있어요.
글자를 안 만들었으면 어려운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글을 만들 때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겠어요.
한글은 너무 쉬워요.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것도 한글이니까 쓰기 편해요.

세종대왕님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해시계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도 잘 지어요.
그리고 악기도 소리가 좋아요.
한글 때문에 일상생활이 편해요.
세종대왕님 존경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6해 들여름달 스무여드레 낫날 (5.28.목)

강우 올림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2학년 황하루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사람이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반대해서 힘들어 했다.

나는 힘든 일을 할 때 시간만 가는 거 같다.

세종대왕도 나랑 같은 마음일 것 같다.

그래도 힘내도 한글을 만든 게 대단하다.

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가도

답답해도 불편해도 꼭 마무리까지 해야겠다.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소예원

기억나는 문장은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그 모양을
각기 아래, 위 또는 왼쪽, 오른쪽에 서로 합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마침내 1443년에 새로운 문자가 완성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글자를
안 만들었다면 지금도 한자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세종대왕은 책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책읽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어요.

생활그기림

김서연	초 3학년	귀신이 찾아왔다	생활꽃기림
이다온	초 1학년	재미있는 지리산 한밤자기	생활꽃기림
김유주	초 3학년	삼총사가 문 연 서점	나눔꽃기림
조이현	초 2학년	따숨놀이터	나눔꽃기림
시도아	초 1학년	재미있는 따숨지역아동센터	이음꽃기림
정지우	초 1학년	밭심을 키우는 한밤자기	이음꽃기림
이지우	초 3학년	지리산 무서운 소리	이음꽃기림
신혜승	초 4학년	전북대학교 신문사 방송 수업	이음꽃기림
차지유	초 5학년	지리산 한밤자기	이음꽃기림

귀신이 찾아왔다

따숨지역아동센터

지리산 한밤자기 때 이른 새벽 여섯 시쯤
순이네 흙집 제일 높은 숙소에
어떤 귀신이 왔다 갔어

어떤 귀신이었냐고?
센터님처럼 생기고 갑자기 찾아와
“히히히...”
이러고 가는 귀신이야.

우리한테 갑자기 그러고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 여자아이들뿐이었거든
그래서 모두 잠에서 깬다니까

너희도 귀신이 찾아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

재미있는 지리산 한밤자기

맛있는 게 많았던 지리산 한밤자기
쫄깃쫄깃 삼겹살
멀리 늘어나는 마시멜로
엄청 쫄깃한 단 호박 쫄드기
내 배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신나는 베개싸움
하지만 얼굴 치는 것은 반칙!
밤에 창문을 두드리는 흰색 귀신
아마도 센터장님일거야~.

재미있고 신나는 지리산 한밤자기!

삼총사가 문 연 서점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김유주

들봄달 초닷새 나는 따끈따끈 시장 따끈따끈 서점의 사장이 되어봤다.

그 가게에는 무슨 사장들이 있었냐고?

바로 삼총사인데, 1, 2, 3번의 삼총사였어.

이하은 김서연 김유주 우리는 서점에서 책을 팔았어.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가서 사 오는 순서를 정하자”

“그래”

“알겠어!”

우리는 계속 책을 팔았다.

지영이 언니가 내 책을 사줬다.

“지영 언니! 내 책 살래? 하이큐 말이야.”

“어! 살래!”

야호! 돈을 벌었다. 달랑 2000원.

팔다보니 내 차례가 되어서 물건을 사러 나갔다.

일단 대왕 팝잇을 샀다. 그리고 ‘정색금지’라는 재밌는 미니 책을 샀다.

“얼마야?”

“1000원”

나는 기가 찼다. 왜냐면 팔기 전에 샀던 가격도 1000원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책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 인형 얼마냐고 해서 살 거면 책도 필수라고 했는데, 돌아갔다.

그때 내 눈에 봉어빵, 소떡소떡, 핫초코, 짹짹쿠, 떡볶이가 보였기 때문이다.

“애들아, 내가 핫초코 쓸게!”

나는 돈을 가지고 뛰어 갔다.

돌아와서 용돈 기입장을 봤는데,

‘헉!’

돈이 얼마 안 남았다.

“곧 끝납니다.”

나는 빨리 사람들을 불러와서 책을 팔았다.

“나이스!”

드디어 다 팔았다. 마지막으로 후원하고 끝났다.

나는 3000원을 후원했다.

이걸로 따끈따끈 26차는 여기서 끝이다.

재밌는 시장이었다.

사과나무의 마음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조이현

사과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따숨놀이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지요. 그 둘은 같이 추운 고비 더운 고비를 이겨내면 더 힘든 고비인 겨울도 이겨내면 봄이 옵니다.

사과나무는 새싹이 피고 따숨놀이터는 친구들 웃는 소리에 심심할 틈이 없네. 또 다시 가을이 왔네 사과나무는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네 따숨놀이터는 겨울을 반겨주네

재미있는 따숨지역아동센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학년 시도아

난 따숨이 좋아

친절한 선생님

재미있는 친구들

장난끼가 많은 오빠들

착하고 다정한 언니들

센터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밤심을 키우는 지리산 한밤자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학년 정지우

나는 지리산 한밤자기를 했다.

버스 기사님이 센터장님 말씀 잘못 들어서 다른 곳에 내려주셔서 다시 버스를 탔다.

그리고 다시 내려주시고 산을 올라가라고 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아주 다리가 아팠다.

한참 올라가는데 드디어 도착했다.

다들 고생했다 아주 힘들었다.

배고팠다. 그래서 굴을 먹었다.

방을 정했다 여자 저학년, 여자 고학년, 남자 저학년, 남자 고학년, 이렇게 방을 정했다.

고기를 먹었다 다들 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재미있게 놀았다.

그야 뭐 하겠어? 베개싸움이랑 마니또랑 눈감술이야 밤을 새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하고 그만 나도 양치하고 잠을 자버렸다.

지리산 무서운 소리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이지우

나는 3학년 때 버스 타고 지리산을 갔다. 숙소에 도착해서 나는 신났다. 올라타기 힘들었다. 우리 모듬은 이다온, 조윤우, 정강우, 이하율, 박다니엘, 수진쌤, 효정쌤들이었다. 우리는 삼겹살 먼저 먹고 소세지를 먹었다. 그것도 완전 맛있다. 마시멜로도 먹었고 쫄면은 안 먹었다.

그리고 강우가 이렇게 말했다 ‘밤 새 사람!’ 그래서 나는 ‘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밤 새기로 했다. 놀고 있던 중 예원쌤이 놀러왔다. 호랑이에게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이다온이 울었다. 다른 친구들은 ‘악!!!!!!’ 고함을 질렀다. 나도 놀랐다. 그런데 어디서 무서운 노래가 있었다. ‘으이히히히!’ 그래서 난 놀랐다.

새벽 1시쯤에 잤다. 자기 전에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러 갔다. 계란말이랑 밥 먹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드론을 날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론을 쫓아갔다. 그리고 집으로 갔다. 버스 타고 가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런데 그 소리는 누가 낸 거지?

전북대학교 신문사 방송 수업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신혜승

선생님이 며칠 전부터 말했다. 전북대학교 신문사 방송 수업을 한다고, 계속 자다 보니 벌써 수업하는 날이 왔다. 오늘 첫 수업인데 뭐 할지 궁금했다. 모둠끼리 앉았다. 선생님들이 자기소개를 했다. 선생님이 이름표를 만든다고 했다.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간단하게 검정색으로 글씨만 예쁘게만 썼다. 근데 다 쓰고 보니 친구들이 다 할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에 스마일을 그려 꾸몄다. 다 하고 나서 첫날이니깐 보드게임과 이야기를 하면 놀았다. 그러며 첫날 수업은 끝났다.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좋았다.

다음날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카메라로 찍어봤다. 처음 하는데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다. 그다음으로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스케치북에 써 카메라 앞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말해보기도 하고 카메라도 찍어 봤다. 해 봤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었다. 그리고 내일 시의원이 온다 해 질문을 쓰고 두 번째 수업도 끝났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힘들었다.

수요일 선생님이 어제 말한 대로 시의원이 왔다. 내 질문은 시의원이 되어 제일 힘들었을 때와 제일 기쁠 때는 언제 인가요?이었다. 그랬더니 시의원님이,

“저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제 노력을 알아주지 못할 때와 제일 기쁠 때는 사람들이 제 노력을 알아 줬을 때가 제일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들 질문을 내고 나는 선생님들과 놀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은 갔다. 선생님들과 못 놀아서 아쉬웠다.

다음날 목요일 선생님들과 전북대에서 직접 아나운서와 음량조절을 해본다 했다. 가니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었다. 방송하는 데에 가보니 의자가 많고 컴퓨터와 음량 조절기가 있고 따로 방송하는 방도 있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은 음량조절 한 명은 아나운서를 한다 했다. 그리고 아나운서 한 사람은 음량을 조절하고 음량 조절한 사람은 아나운서를 한다 했다. 나는 지우랑 해서 처음은 지우가 아나운서를 했다. 나는 음량 조절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별로 안 어려웠다. 다음으로 내가 아나운서를 했는데 선생님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했다. 다 끝내고 도서관도 가고 박물관도 갔다. 둘 다 너무 재밌었다.

다음날 마지막 날이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했다. 마지막 날이라서 선생님들이 치킨을 사주셨다. 맛있는 치킨을 먹다 보니 선생님들이 가야 할 시간이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울어 버렸다. 선생님들이 나를 달래줬다. 아쉽게도 선생님들이 가야 해서 내려가기까지 해가지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지리산 한밤자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5학년 차지유

처음에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지리산 한밤자기에 도착해서 엄청 많이 걷고 많이 있는 삼겹살, 돼지고기를 먹었다. 엄청 많이 뛰고 많이 먹었더니 고기가 엄청 꿀맛이었다. 나는 후식으로 쫄면, 마시멜로를 먹었다. 나는 우리 모둠에서 1등으로 먹어서 나는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혼자 게임을 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다.

나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있는 데로 갔다. 서지아랑 차은유가 다 먹어서 우리끼리 베개 싸움을 했다. 나는 방심을 하다가 은유랑 지아한테 동시에 베개로 맞았다. 나는 진화를 해서 서지아랑 은유를 동시에 때렸다. 우리가 언제까지 놀았을까? 벌써 9:50분이었다. 나는 그래서 양치를 했다. 냉장고를 봤더니 얼음이 있었다. 웬지 지리산 한밤자기 물로 얼려서 정말 맛있었고 선생님 몰래 먹어서 더 더 맛있었다.

이제 진짜 자는 시간이 되어서 은유, 지아랑 밤을 새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자버렸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보물찾기를 한다고 빨리빨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서지아랑 주형 언니

는 아직까지도 자고 있었다.

나는 서지아랑 같이 보물을 찾고 싶어서 계속 서지아한테 같이하자고 계속 말을 걸었다. 내가 계속 졸라서 서지아도 같이 보물찾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보물찾기에서 안경을 찾아서 친구들한테 찾았다고 자랑을 했다. 보물찾기가 거의 끝났을 때 서지아도 다행히 찾아서 상품으로 바꾸었다. 보물찾기가 진짜로 끝났을 때 우리는 나물이랑 내가 못 먹는 신선한 야채랑 채소랑 고기가 많았다. 그리고 내 지리산 한밤자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육개장이랑 닭개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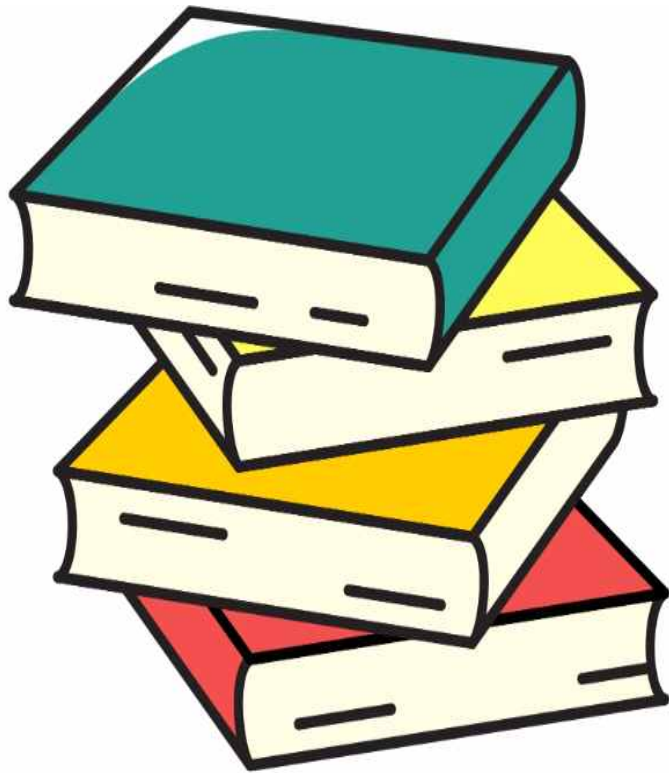
일단은 우리가 1팀이 아니어서 2번째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 또 선생님이 걸어야 한다고 해서 또 지옥 같은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 친구들은 절망에 빠졌다. 나도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졌다. 다시 또또또 걸었다. 저 멀리 버스가 보여서 우리는 동시에 친구들이랑 뛰었다.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와서 바로 앉아서 그동안에 몰려왔던 졸음이 한번에 밀려왔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서지아는 자고 있고 선생님이랑 서연이랑 하은이랑 묵찌빠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누가 이기는지 궁금해서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바라봤다. 시간이 언제 흘렀을까? 벌써 도착을 하였다.

나는 선생님이랑 인사를 하고 나는 은유랑 집으로 바로 뛰어가서 침대

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잠이 와서 잤다, 일어나보니까 엄마가 와있어서 그동안에 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고 내 일기장에 있던 일을 적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학교 발표로 지리산 한밤자기 시를 써서 발표를 했다.

배움꽃기림



배움과 독후감

이지안	초 1학년	세종대왕	독후감
채연우	초 2학년	세종대왕	독후감
김지울	초 3학년	세종대왕	독후감
박준영	초 3학년	세종대왕	독후감
조이현	초 3학년	세종대왕과 장영실	독후감
홍라희	초 4학년	세종대왕	독후감
김서연	초 3학년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독후감
신혜승	초 4학년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독후감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1학년 이지안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

한자는 너무 어려운데 한글은 재미있다.

그래서 좋다.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2학년 채연우

세종대왕이 정말 고마운 분이신데 더 더 소중하신 분이라고 배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서 정말 꼭 유명한 책이 되고 꼭 모든 사람이 세종대왕을 알게 되면 좋겠다.

꼭 이 세종대왕 책이 유명해지면 좋겠다.
세종대왕 파이팅!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김지율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

한자는 너무 어려운데 한글은 재미있다.

그래서 좋다.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2학년 채연우

세종대왕이 정말 고마운 분이신데 더 더 소중하신 분이라고 배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꼭 유명한 책이 되고 꼭 모든 사람이
세종대왕을 알게 되면 좋겠다.

꼭 이 세종대왕 책이 유명해지면 좋겠다.

세종대왕 파이팅!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김지율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읽고 쓸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는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쓸 수 있다.

세종대왕은 책을 많이 읽었다.

나는 만화책을 좋아하지만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똑똑해졌다. 나도 책을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박준영

나는 세종대왕을 좋아한다.

그 이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시고 훈민정음을 만드셔서 그리고 나는 세종대왕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셔서 한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글을 쉽게 이해를 했다.

근데 세종대왕님이 무슨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로 소중한 사람 때문이고 나는 세종대왕님을 잊지 않고 꼭꼭꼭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종대왕님 파이팅! 굿! 최고!

세종대왕과 장영실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3학년 조이현

세종대왕에게 신하가 노비인 장영실이 천문과 과학을 잘한다고 말해주니 세종대왕은 당장 장영실을 불러왔다.

장영실은 세종대왕 앞에 불러갔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여러 가지 생활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에 기뻐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과 과학을 사랑하는 장영실이 만난 이후 백성들을 위한 발명품인 자격루와 해시계 등을 만들게 되었다. 그 이후 장영실에게 노비 신분을 없애주었다.

나도 세종대왕처럼 겉모습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종대왕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4학년 홍라희

세종대왕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28자의 한글을 만들었다.

음악, 과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최초의 한글로 쓰인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썼다.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이름 김서연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형들이 부족한 게 있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던 때라 훈민정음을 만들고 음악, 과학 등을 발달시켰다.

그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우리말을 쓰며 쉬운 글을 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말을 고맙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이름 신혜승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한자를 힘들게 하나하나 외우고 있겠지
조상들도 오늘의 우리도.

세종대왕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
훈민정음이 있다.

그 노력 덕분에 우리만의
글자가 있다.

만약 세종대왕이 살아 있다면
꼭 고맙다고 말 할거다.

배움꽃 생활글

이하율	초 1학년	사랑하는 센터	생활글
최하은	초 2학년	한밤자기에 밤하늘~	생활글
이하은	초 3학년	삼총사가 함께 한 시장	생활글
정강우	초 3학년	상상 드림 피크닉	생활글
양지우	초 4학년	안녕 꽃게야	생활글
조유라	초 4학년	지리산 한밤자기	생활글
최우주	초 4학년	베게 싸움은 내 전문	생활글
황다은	초 4학년	나도 다닐래	생활글
신우정	초 6학년	힘든 지리산 한밤자기	생활글
유상민	초 5학년	밥 먹는 습관	생활글

사랑하는 센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학년 이하울

2월25일에 밤8시에 마시멜로우랑 쫘드기가 맛있었어요.

밤9시에 지리산 집에서 짬프놀이 했어요.

배게 싸움도 했다.

한밤 자기에 밤하늘~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2학년 최하은

나는 백선엔 선생님과 같이
별을 볼라고. 나갔다.
그런데 밤이라서 조금 무서웠다.
별을 보니 무서운 게 조금 줄었다.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불 속은 따끈따끈 해서 좋았다.♥
너무 뜨거울 때만 발을 올리고
또 안 뜨거울 때만 내리고
그런데 깎다 잤다는 반복했다.
그래도 아침에 보물찾기와 맛있는 밥을 먹어서
너무 즐거웠다.

삼총사가 함께한 시장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은

오늘은 들봄달 초닷새 따끈따끈 시장을 하는 날이다.
나는 이하은, 김서연, 김유주 삼총사들과 같이 따끈따끈 시장을 했다.
우리는 책, 인형을 팔았다.
거의 다 팔렸는데 몇 개가 안 팔렸다.
그래도 내 거는 다 팔렸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나는 내 물건도 팔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했다.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산 게 잘 산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쓸모없는 걸 왜 사왔어!”라고 말했다.
나는 기분은 안 좋았지만 괜찮았다.
그래도 앞으로는 쓸모없는 것은 안 사기로 했다.

상상드림 피크닉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 정강우

나는 상상드림 피크닉을 갔다. 가는데 몇 시간을 걸었다.

카페도 있었다. 운동장도 넓었다. 남자 방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뿌링클 치킨도 있었다.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했다. 또 가고 싶다. 강당에서 활동을 했다. 카페에서 좀 쉬었다. 숙소에서 놀았다. 재밌었다. 화장실이 2개였다. 난 못 씻었다. 선생님이 씻지 말라고 했다.

내가 좀 늦게 잤다. 손바닥 자국이 형 옆에 있었다. 카페에 맛있는 음식은 못 먹었다. 돈이 없었다. 선생님이 돈을 가져 오라고 안 했다. 또 가고 싶다. 강당에서 뿌링클 치킨을 먹었다. 난 그냥 치킨을 먹고 싶었다. 난 뿌링클 치킨을 별로 안 먹었다. 백쌤이 뿌링클 치킨을 먹으라고 말했다. 강당에서 레크레이션을 했다. 재밌었다.

안녕 꽃게야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양지우

서천에서
맨발 걷기를 했다.
진흙은 물렁물렁
근데 내 발이 간질간질
내 발을 보니 꽃게가 있다.

안녕 꽃게야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지리산 한밤자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조유라

지리산 한밤자기를 갔을 때
친구들, 언니들과 같이 방에서 놀았다.
안 친한 언니들과 같이 놀아서
기분이 좋았다.
말기 게임을 했을 때
잘은 모르지만 같이 했을 때
계속 틀려서 친구들과 언니들이 화낼까 봐 떨렸다.
그런데 언니들이 괜찮다고 해줬다.
그래서 친구들과 언니들과 더욱 더 친해진 것 같았다.

베개 싸움은 내 전문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최우주

지리산 한밤 자기에서 베개 싸움을 했다.
너무 재밌었다. 베개 싸움은 내 전문이다.
너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뭐야?
나는 베개 싸움 전문이야.
나는 너무 기뻐다.
왜냐하면 준서 형이랑. 했거든.

그리고 우리 숙소가 순이네 흙집이다.
나는 저녁으로 삼겹살 안 먹었다.
오늘도 저번에 갔다 온 지리산 한밤 자기처럼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
겠다.

나도 다닐래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4학년 황다은

난 항상 무심하고 핸드폰만 하던 애였다.

어느 날 센터를 다니게 되었다. 다른 센터는 멀어서 못 다녔다.

근데 어느 날 따숨이란 센터를 발견했다. 거기선 선생님도 착하고 거기서 급식도 먹었다. 난 따숨에 빠져들었다. 난 따숨을 다니다 보니 기분이 좋다. 난 또 기뻐서 쿠로미로 서랍을 꾸몄다. 물론 누가 내 서랍에 쿠로미 밴드 한 개 훔친 후 다시 내 쿠로미 물건 우리 집에 다시 뒀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목표다. 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그리고 난 아직도 여기가 좋다. 그러니 “나 좋아해 줘라”

힘든 지리산 한밤자기

따숨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6학년 신우정

나는 2월 겨울방학에 지리산 한밤자기를 갔다. 버스가 산까지 못 올라가서 힘들게 걸어서 올라갔다. 지은 쌤이 사과를 나한테 들고 왔다.
“우정아! 이것 좀 들어줘!”

“아…네…”

나는 힘들었지만, 선생님도 힘들었기에 거절을 할 수 없었다. 지리산을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순이네 휴집 사장님이 차를 타고 내려오셨다.
“선생님들!~~ 제가 짐을 차에 싣고 올라갈게요!”

나는 사장님 말에 짜증이 났다. 나는 힘들게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힘든 나 앞에서 차를 타고 가서 화가 부글부글 났다. ‘나 좀 태워주지….’ 올라가는 데 1시간 30분은 걸은 것 같았다. 순이네 휴집이 보일 때 지음이 언니가 나한테 말했다.

“언니가 들어줄까?”

“응! 응!”

나는 바로 수락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등위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왔을 때 너무 눕고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바로 밥 먹을 거니깐 눕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잘 놀았다. 힘들지만 다음에도 가게 되면 꼭 가고 싶다.

밥 먹는 습관

따숨놀이터

초등학교 5학년 유상민

양녕이 아침밥을 와그작와그작 후루룩 닭다리도 손으로 잡아 뜯는가 하면 국물도 소리 나게 들이켰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나와 같다’ 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나도 안녕처럼 비슷하게 밥을 먹어서다. 나도 비슷하게 먹는 게 부끄럽다.

다음부터 밥 예절을 잘 지켜야겠다.

배움의
기쁨

독후
화

김유주	초 3학년	세종대왕	따숨지역아동센터
조서현	초 3학년	세종대왕	따숨지역아동센터
차지유	초 5학년	세종대왕	따숨지역아동센터
신지영	초 6학년	훈민정음	따숨지역아동센터
김가현	고 2학년	세종대왕	따숨지역아동센터
시도아	초 1학년	편 종	따숨지역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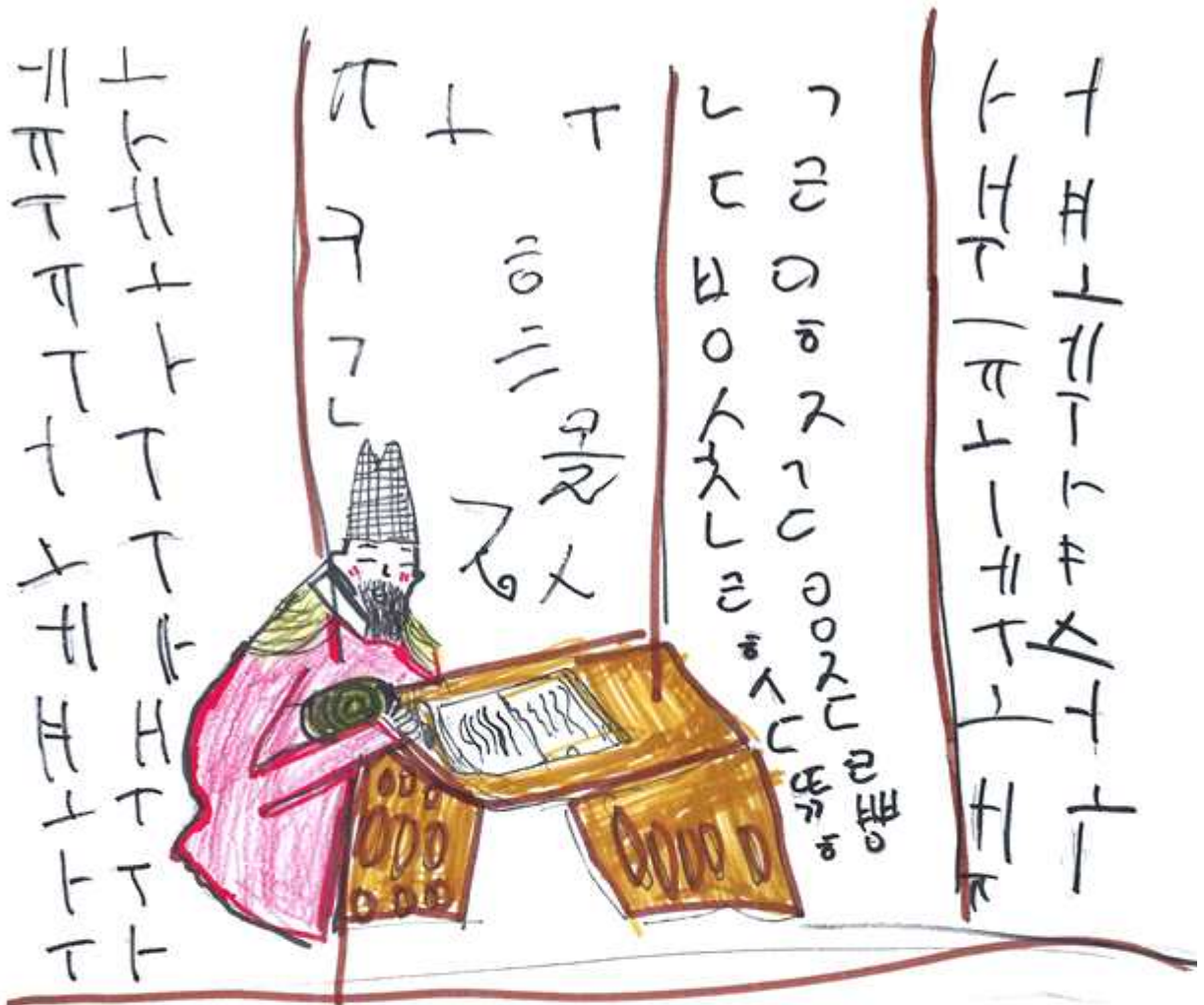


김유주 (초 3) 세종대왕



다행이 나라일은 알찌감치
 세자에게 물려주었기에 학문에 전
 념할 수 있었지만 아제는 나이를
 어찌 못하게 된 것입니다...

조서현 (초 3) 세종대왕



이대로는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양녕을 세자 자리에서 내리고
 궁에서 나가 살게 하시오.”

궁궐을
 난감하는
 사람이야.
 아하하

그래



차지유 (초 3) 세종대왕



시도아 (초 1) 편종



신지영 (초 6) 훈민정음



김가현(고 2)
세종대왕

세종대왕 마음을 알아주었다.

한경순 작가, 심사위원 대표

어린이들 글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렸다. 푹푹 푹푹.

새소리, 바람소리, 구름의 투정까지 담아낸 물에서 아이들은 반짝이는 돌 하나를 건져 올렸다.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대왕이다.

-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훈민정음도 없었겠지.(졸임)

책도 없었겠지 (졸임)

한글이 있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신우정)

- 한글을 만들어줘서 고맙다(손이설)

- 한글 덕분에 쓰기가 편하다 (정강우)

-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반대해서 힘들어했다. 나도 힘든 일을 할 때 답답하고 불편하고 시간만 가는 거 같다. 세종대왕도 나랑 같은 마음일 것 같다. 그래도 힘내서 한글을 만든 게 대단하다. 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가도 답답해도 꼭 마무리까지 해야겠다(황하루)

-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한자를 지금도 써야 할 것 같다(소예원)

당시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찢찢매는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한자보다 소리체계가 쉽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이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그런 세종대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한결같이 고맙다, 잘 쓰고 있다. 덕분에 편하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

해가 갈수록 어린이들의 수꿈(상상력)과 책말, 입말, 글말이 말글책꽃기림을 통해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날 거라 기대한다.

1월 따숨 밑들책꽃기림 생활글심사평

요즘 아이들은 가정, 학교, 돌봄이라는 세 개의 중심축 환경 안에서 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갈수록 돌봄 틀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보려고 애쓰는 중이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어린이 돌봄은 1991년부터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경제산업정책에 따른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사회적 돌봄이 시작된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들은 AI 인공지능시대의 도래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생각하기, 물음대꾸하기, 소통능력은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자신감을 준다. 또한 지역사회와 양육자가 돌봄 센터와 함께 자녀양육을 위해 협력하면 어린이들이 안정감있게 잘 자란다.

생활글 공모는 이런 차원에서 따숨과 아랑곳한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게 되었다.

- 난 따숨이 좋아. 친절한 선생님, 재미있는 친구들, 장난끼가 많은 오빠들, 착하고 다정한 언니들, 센터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시도아, 초1)
- 사과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따숨놀이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지요. 그 둘은 같이 추운 고비, 더운 고비를 이겨내면 더 힘든 고비인 겨울도 이겨내면 봄이 옵니다.(줄임) 따숨놀이터는 심심할 틈이 없네. (조이현, 초3)

어린이들이 느끼는 돌봄 센터 모습이다. 이외에도 따끈따끈 시장, 지리산 한밤자기, 전북대와 함께 한 활동, 센터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 밭에서 따숨씨로 자라는 걸 보았다.

올해 독후감 13편, 생활글 19편, 독후화 6편 모두 38편의 글이 들어왔다. 앞으로 양육자와 어른들의 생활글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2026 따숨 말글책꽃 활짝 글,그림 공모

2026.1.10 ~ 2026.4.30.

시상식날짜 : 들여름달 서른날(2026.5.30.토)

어린이들의 입말을 살리고 글쓰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글,그림을 공모합니다.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 따숨 조합원, 후원자
- 따숨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학부모
-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이용아동, 학부모
운영위원, 후원자, 종사자, 실습생, 지역아동복지교사
대학생멘토, 어르신일자리, 관련있는 누구나 가능

분야

- **독후감** '고정욱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종대왕'
(고정욱 글, 이강 그림, 도서출판 산하)
- **생활글** 어린이 : 센터 토크쇼배움 활동 이야기
어 른 : 센터에 관련된 자유주제

기타 안내사항

- **글의갈래** 산문, 운문, 그림 모두 지원 가능
(AI 사용 금지)
- **제출편수** 독후감, 생활글 모두 지원 가능
- **제출양식** 센터 서식 이용할 것(센터 비치)
어린이는 검정볼펜(컴퓨터금지)
어른 컴퓨터작성 A4 글림 11 크기
*입상 작품은 사회적협동조합 따숨이
보유하며 사용합니다.
- **접수방법** 어린이는 각센터 제출
어른은 majumal@hanmail.net

기림(상)내역

- **어린이** 책말꽃 기림(상) 5만원 상당 상품권
- **독후감** 입말꽃 기림 5만원 상당 상품권
글말꽃 기림 5만원 상당 상품권
- **어린이** 생활꽃 기림 5만원 상당 상품권 2명
- **어 른** 나눔꽃 기림 3만원 상당 상품권 2명
- **생활글** 이용꽃 기림 1만원 상당 상품권 5명
- **공 통** 배움꽃 기림 기림(상징)



펴낸 날 2026해 온여름달 스무닷새 (6.15)
펴낸 곳 사회적협동조합 따숨
참여 곳 따숨지역아동센터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따숨놀이터
후원계좌 1013-01-3562493 전북 (사회적협동조합 따숨)

인쇄처

값 5,000원